

vol.223

SCIENCE & CREATIVITY



월간

과학창의04

2016

Special Theme

**4월 과학의 달,
과학기술 50년**

오프닝 칼럼

과학기술 50년,
미래희망 100년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스토리

과학기술 50년
50가지 이야기
www.scienceall.com

과학자 이야기

한국 과학기술을 일군 개척자
최형섭
성하운 사이언스타임즈 객원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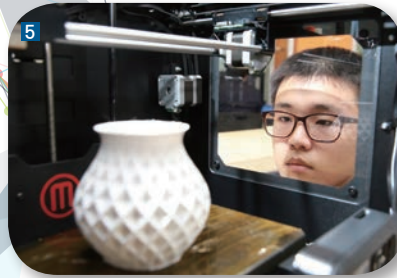
과학기술로
성장한 50년

100년의 희망을
만들어 갑니다



ISSN 2284-2892

9 772384 280009



막강 과학 인프라를 시민들 속으로... 과학문화 확산에 나서다

포항공대 나노융합기술원 무한상상실

글_ 김순강 「사이언스타임즈」 객원기자 | 사진제공_POSTECH 나노융합기술원 무한상상실

첨단과학의 도시 포항은 세계적인 연구중심대학인 포항공대를 비롯해 포항테크노파크,
한국 로봇융합연구원 등 과학 인프라가 대단하다.

이런 막강한 과학 인프라를 시민들과 연결하고 과학의 대중화와 과학문화 확산을 위해 무한상상실이 나섰다.

포항공대 무한상상실은 대학 내 나노융합기술원에 설치되어 있는데, 지난해 10월 경북 지역 거점센터로 선정된 후 미국 MIT의 미디어랩을 벤치마킹해서 자유롭게 상상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무한상상실 전용공간을 꾸몄다.

전용공간 5층은 실험공방과 창작랩, 전산실, 세미나실 등 10억 원의 자체 예산을 들여서 증축했고, 6층은 창의누리 스튜디오로 증축해 총 50억 원 이상을 투자하는 등 자발적으로 창작에 몰입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했다.

나노융합기술원 김병수 사업지원팀장은 “주변에 과학문화연구센터와 가속기연구소,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70개의 유관 연구소가 있어서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이곳이야말로 무한상상실의 최적지가 아닐 수 없다”고 소개했다.

‘창의누리, 꿈과 상상이름 프로젝트’ 진행

포항공대 무한상상실은 대학 캠퍼스에 자리하고 있는 만큼 활기가 넘쳤다. 대학생 창작자들은 물론 중고등학생들과 일반인들까지 자유롭게 고가의 창작 장비들을 이용해 상상 속 아이디어들을 현실로 구현해 낼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곳에서는 ‘창의누리, 꿈과 상상이름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3D프린터와 융합된 창작물로 시너지 효과를 올리고 있으며 대학과 일반 동아리, 지역 예술작가들의 자발적 커뮤니티를 통해 메이커문화를 확산시키고 있다.

실험 공방형 프로그램으로 3D모델링과 3D프린팅 실습으로 관련 산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찾아가는 3D프린팅 특화교육’과 아두이노 기

반으로 창의성을 발휘해 로봇과 모션센서를 활용한 작품을 만들어 보는 ‘자유창작Lab’ 메이커클럽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이곳에서 도출한 성과만도 150여 건에 달한다.

아이디어 클럽형으로는 발명원리를 이해하고 창의적 문제해결방식으로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창의력 증진 프로그램’과 지식을 함께 공유하면서 그것을 기반으로 문제를 찾는 능동적 Design Thinking 과정의 ‘궁리실현 공작소가 있다.

또 ‘음식문화콘텐츠 스토리 창작소’와 ‘빛과 그림자로 만나는 과학 애니메이션’, ‘창작노래극 제작소’, ‘자전에세이 자서전 스토리텔링’ 등 스토리텔링형도 운영되고 있다. 이 가운데 과학 애니메이션에서는 라이트룸이라는 빛상자 위에 모래를 뿌리고 거기에 스토리를 입혔다. 샌드아트에 스토리를 더해서 애니메이션 영상으로 제작해 상영함으로써 좋은 반응을 얻었다.

경북 지역의 다양한 음식 문화 콘텐츠를 스토리텔링으로 재해석한 ‘음식과 문화의 만남’ 스토리창작소도 이색적이었으며, 개인의 삶과 포항의 역사와 문화를 연계해 만드는 ‘자전에세이 자서전 스토리텔링’은 젊은이보다 어르신들에게 인기가 높았다.

딱딱한 과학이 스토리텔링으로 지역민과 호흡해

이뿐만 아니라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서 소재를 찾아내 창작 시나리오로 작성, 창작 극화 활동을 하는 창작노래극 제작소는 영상 촬영과 영상 편집, UCC제작, You Tube 탑재 등으로 창의융합적 결과를 만들어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11월에는 ‘누구야, 누구?!’ 라는 콘서트를 열어 지역민들과 소통을 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과학·예술의 창조공방’은 엔지니어, 예술가, 아이디어 발상가의 만남으로 과학과 예술 속 창조를 꿈꾸는 메이커 문화를 조성하고, 드림페어전을 열어 창의적인 성과물들을 공유했다.

이처럼 지난해 개소 이후 다양한 아이디어로 좋은 성과를 올렸던 포항공대 무한상상실은 올해 좀 더 새롭고 창의적인 프로그램들을 구상 중이다. 김병수 팀장은 “대학 내 박사들과 인근 초등학교 학생들을 매칭시켜서 프로젝트 연구를 진행하는 것은 이미 시작했고, 신라시대 문화재를 복원하고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무한상상 문화재 재현 프로젝트’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경주 문화유산의 숨은 원리를 찾아보는 ‘무한상상 경주의 비법 구현 프로젝트’와 신라시대 유물의 뿌리 기술과 미래 기술을 융합해보는 ‘박물관이 살아있다’, 한옥의 건축 기술과 미래 기술을 융합해보는 ‘양동마을 다시 짓기’ 등 올해는 과거와 미래를 연결시키는 융합 프로젝트를 많이 시도해 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1 대학 내 나노융합기술원에 설치된 무한상상실
- 2 창작노래극 수업 현장
- 3 대학생은 물론 중고등학생들과 일반인까지 참여할 수 있다
- 4 전용공간 5층에 있는 자유창작랩
- 5 3D 프린터실
- 6 메이커스대회 아이디어톤
- 7 3D 스캐너 실습
- 8 과학예술의 창조공방 드림페어전